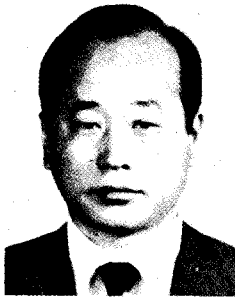


육계업 안정화를 위한 길



이 인 형

농림수산부 중소가족과장

육계가격이 지난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상당기간 지속되어 양계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육계는 생산주기가 짧아서 가격이 떨어진 후 2개월이 지나면 곧 가격이 회복되곤 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 여름철의 긴 장마와 노사분규 등으로 닭고기의 소비가 둔화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봄에 병아리값이 40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육계불황은 이미 예고 되어 정부에서나 관계기관 모두가 이를 우려하여 병아리의 생산과 농가입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계속 입식숫자를 늘려 가격하락의 장기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8월이후 육계가격이 하락되면서 병아리값도 100~150원대로 하락되자 농가에서는 생산비가 낮아지고 선저철 등으로 닭고기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의 잘못된 판단이 적용된 결과라고 본다.

이는 육계농가들이 아직까지 영세하고 정보에 밝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계·부화업계에서도 지난 8월에 자체결의에 의하여 육계값이 안정될 때까지 성수기 압란수를 대비하여 40%이상을 감축하자고 결의한 바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간 정부에서는 닭값 안정을 위하여 닭고기의 수매비축 실시와 소비촉진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농가나 이에 관련된 도계업, 사료업계 등 모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계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닭의 집단사육지역 또는 전역별 협동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의 제공과 기술지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따라서 대한양계협회내에 육계·종계·부화업계는 물론 사료생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총 참여하는 "양계산물가격안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닭고기의 생산조절과 수급안정을 위한 각종 기술과 정보의 제공은 물론 양계시책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서구제국의 예를 보면 자조금제도(自

助金制度)를 이용한 생산·소비 확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계인 스스로가 살아나 갈 자구책을 마련하므로써 안정된 성장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음을 볼때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렇게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대상자를 찾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들의 식품구조를 보면 적색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서 백색육류(닭고기 등)로 소비구조의 변화와 가공품의 개발 및 품질좋은 닭고기의 공급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2kg으로써 우리나라의 3.1g에 비하면 무려 4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볼때 양계업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어느 축종보다 크다고 본다.

본인은 지난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미국대두협회 초청으로 미국의 산란계, 육계 농장과 중계, 부화장을 비롯하여 닭고기 계란의 유통, 가공 등 전반적인 분야를 시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미국의 양계업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계열화 생산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계획적인 생산조절로 안정화된 사업기반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 부분육이나 정육상태로 처리되어 유통되며 소세지나 햄버거 패티 등의 원료로 공급될 뿐 아니라 켄터키 후라이치킨이라는 닭튀김은 즉석식품으로 그 소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축산식품을 위주한 식품구조가 매우 발달된 나라이지만 생산자단체 또는 홍보전문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미국과 같이 선진화되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국민에게 닭고기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어느 미국인에게 농담을 던졌더니 그는 그런 이야기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육류를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닭고기를 더 많이 지속적으로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닭고기의 요리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홍보활동을 다소라도 게을리 하게 되면 육류소비구조가 다른 육류로 크게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닭고기 소비증대를 위한 노력은 생산농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반의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이익이 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한다든가, 다음이야 어떻든간에 한 뭉에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양계인 여러분은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줄 알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줄 알며 밀력 하나나 서로의 힘을 합하면 큰 힘이 된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개구리가 움추리는 것은 좀더 멀리 뛰기위한 준비자세라는 평범한 자연의 진리를 우리는 가까운데서 찾아야 하겠으며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도 “노력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양계업은 안정된 기반위에서 성장산업으로 육성되어 양계농가의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고 복지가 더욱 향상 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염원해 본다. **양계**